



서남대정상화 공동대책추진위는 서남대정상화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에 대해 서남대정상화 계획서에 대한 조속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방안으로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서남대정상화 성명서 발표

### 공동대책 추진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지역주민 공감 방안 심의 촉구

서남대정상화 공동대책추진위(이하 공동대책위)는 서남대정상화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에 대해 서남대정상화 계획서에 대한 조속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방안으로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6월 7일 구 재단측의 서남대 의과대학폐교와 남원캠퍼스의 평생교육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교육부의 방침처럼 발표한 이후 서남대 정상화에 큰 차질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남원시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남원시민인들을 비롯 정치권, 사회봉사단체, 서남대구생원, 재경향우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해 구 재단측의 정상화 방안을 반대하는 결의

문채택, 결의대회, 릴레이시위, 서명운동 등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구 재단측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임시사회의 승인을 이유로 컨설팅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어 서남대정상화 일정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교육부에서 고의로 컨설팅팅 사분위심의 등을 지연시키는 현상황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실 경영으로 서남대 파탄의 책임이 있는 구 재단 측이 제출한 의과대학 폐교방안을 즉시 반려했고 구조개혁 컨설팅도 즉각 중지하라.' '서남대학교의 정상화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연시켜 정상화를 가로막는 교육부의 비공개, 밀실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는 서남대정상화 계획서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속히 상정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방안으로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지난 8월22일 새롭게 임시이사 7명이 선임됨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절차이행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컨설팅이 진행되도록 역할과 조속한 사분위개회를 통한 서남대정상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공동대책추진위 공동대표는 '국회의장, 각 당대표 및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고 시민들의 간절함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버스터미널 내 금연알림 표지판 부착

###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위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관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객에게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음성경음현판 및 벽면과 바닥에 금연알림 표지판을 부착하였다고 5일 전했다.

군은 '터미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현역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홍보 문구를 관내 4개 버스터미널(고창·대산·해리·흥덕면)의 대기실에 부착하고 터미널내부 벽면에는 금연 음성경음 현판(4개)을, 외부벽면에는 금연 알림현판(9개)을 노면표지판(12개)을 설치 완료했다.

그동안 버스터미널 주변과 화장실 내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제

기되어 왔었고,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에서도 고창군의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이 79.2%로 나타나는 등 금연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설치된 금연음성경음현판은 터미널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음성으로 안내 방송하여 터미널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금연구역 인지율을 높이고 비흡연자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울 상반기 고창군 보건소에서는 학교 앞 금연 정화구역을 알리는 금연현판(43개)을 설치완료 하고 관내 공공이용시설(1,200개소)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에서는 연중 금연콜



리니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

###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도내 14개 시군과 동일 추진

남원시는 '2016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월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 주요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 대상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추진된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0,000㎡(3,000평)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이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동 접수창구에

신청 및 접수는 읍면동 접수창구에

서 사업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약정을 맺을 농민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9월 30까지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금지면 소재 춘향골농협APC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634-5002~3), 남원시청 원예허브와 가공유통계(620-6247), 각 읍면동사무소 산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호응'

임실군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중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폐업신청을 할 수 있어, 이중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과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신청방법은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홍보해 민원인 불편 해소에

신청방법은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홍보해 민원인 불편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통과 공유를 통해 정부3.0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49개 138종이며, 자세한 업종 목록은 임실군홈페이지(<http://www.imsl.go.kr/>) 또는 민원봉사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전북투어패스 준비 '박차'

### 도내 자유관광시설 · 주차장 무료이용 등

남원시는 전북도내 14개 시군과 연계한 전북투어패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남원을 찾는 전북투어패스 이용자들에게 알찬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차별화된 가맹점 가입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전북투어패스 시행은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카드를 구입한 관광객이 입장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카드를 가리킨다. 전북투어패스는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과 같은 역할이다. 패스권을 가진 이용자는 남원뿐만 아니라 전북 도내에 있는 자유관광시설 · 주차장을 무료 이용하는 등 특별할인가맹점으로 등록된 식당, 숙박, 카페, 체험 등에서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이용시설은 자유관광시설 60곳, 특별할인가맹점이 500여 곳에 이르며 그중 남원은 자유관광시설 6곳, 특별할인가맹점은 80여 개가 등록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컨텐츠와 함께 추가등록을 해나갈 계획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될 전북투어 패스라인은 시스템 구축이 완비가 되면 모바일을 통한 구매도 가능하며 남원에서는 기차를 이용해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남원역관광안내소에서 카드발권이 이루어지며 그 외에도 관광투원 경의상가 관광안내소와 관광단지에 위치한 종합관광안내센터 등 3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읍,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민홍보

### 배출방법안내 리플릿 배부 등

임실읍은 기존 음식점 및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난 1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함에 따라 종량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주민홍보에 나섰다.

읍은, 오는 3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를 비롯해 재활용품 배출요령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 성가리 하성마을회관을 방문해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

식 및 아파트 공동 전수수거용기, 시장 등은 개별계량장치(RFID)가 부착된 용기에 배출할 것을 교육했다.

또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은 투명봉투를 이용하고 박스·스티로폼은 묶어서 배출하며, 가구·전기장판 등 폐기물은 읍사무소를 방문해 폐기물 스티커를 발부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희석 읍장은 "주민홍보를 시작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및 음식물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경찰, 교통사고 · 절도 예방 홍보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안과출소에서는 매일 2개 마을 이상을 방문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춘 교통사고 및 절도 예방홍보 등 주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안면 관내 36개 마을 중 매일 2개 마을 이상을 방문하여 회관 및 모정, 들뜰 등 주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운행 자제, 적재함에 반드시 경광등 또는

아광반사지 부착 및 미부착 농기계에 대하여는 부착 실시하여 주고, 이륜차 운행시 안전도 착용, 도로 횡단 또는 보행시 차량 통행여부 확인 및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등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인 점을 감안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자위방범체계 확립 및 추석 여객성 등 장기간 동안 집을 비울시 사전 예약순찰체 적극 활용, 절도형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군 복흥면, 오미자 어울마당 성황리 막내려

### 시음체험 · 농특산물 직거래 등

건강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미자를 주제로한 순창군 복흥면 오미자 어울마당 축제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복흥면에서 최근 주민 소득작물로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오미자의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한 조치다. 실제 복흥면은 일교차가 큰 고랭지 지역의 특성상 열매가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어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순창군은 농업인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또 체험프로그램 진행, 농특산물을 판매해 도시민들에게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고 복흥 오미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축제를 201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수확체험에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미자 시식 · 시음체험,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옛사진 전시 등을 실시해 2,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는 물론 직거래 확대에도 큰 역할을 했다. /순창=이왕영 기자



## 임실군, 예비 귀농대상학교 개최

임실군은 인구유입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귀농학교를 수도권지역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귀농학교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총 32명이 참가해 첫째 날 삼계면 박사골 학정마을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둘째 날은 '전국에서 꽃 나들이 가기 좋은 곳 10선'에 선정된 '덕치구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아 농촌체험과 임실 고추가공센터 견학을 비롯해 표고버섯, 블루베리 친환경 선도농가를 방문했다.

이어, 고추 및 약초 관련 설명을 비롯해 귀농귀촌신청서예 및 정책 강의를 청취했으며, 마지막 날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피자체험 및 수료식을 끝으로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홍보와 체험행사를 비롯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과 개인 맞춤형 지원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어 귀농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해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임실군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경찰, 추석맞이 위문품 전달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5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주민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를 가졌다.

순창경찰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주민을 위한 치안시책을 적극 전개하고 순찰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살천을 위해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 서장은 "무엇보다도 보호대상자분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왕영 기자

## 임실 신덕면, 사랑의김치나눔 행사

신덕면 행복보장협의체 나눔분과 백암면 위원회와 신덕면새마을협의회 및 신덕면 부녀회 회원들은 5일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복보장협의체 회원 등 30여명은 지역에서 재배된 배추를 활용해 총 125kg의 김치를 담겨 독거 노인 25가구에 각 5kg씩 전달해 추석을 앞두고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은 "명절을 맞아 박달감을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기 면장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풍요로운 한가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신덕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해 추석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떡국나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

---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